

# 화상(火傷)에서 얻은 지혜 (하)

조대근 (부산 수영구 광안4동)

모든 모습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겠지만, 화상 입었던 내 피부들도 생로병사를 빠르게 겪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생로병사를 깊이있고 생동감 넘치게 살 수 있었다. 매일 시간이 가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두고 상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찍었다. 그러다보니 피부의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피부를 보면서 ‘혹시나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들었다. 공부하는데 병마구니가 가장 큰 마구니라고 배웠지만 나에게 이별 화상은 병마구니라기보다는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지혜의 실험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2년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새마을원장 장 춘당 이항우 선생님의 법문을 듣고 금요법회와 토요일에 이따금씩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때 참선요지라는 테이프와 다른 테이프를 구입했다.

1년 정도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생활할 즈음 무척 괴로운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춘당 선생님의 참선요지 설법 테이프를 길을 걸을 때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나 가리키고 들었다.

좋은 내용은 따로 메모를 해서 그 글귀를 가슴 앞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괴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읽었다. 그리고 백봉 선생님이 지으신 화상과 성도기를 프린트하여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꺼내 읽어보곤 하였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무렵, 피부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는지 문드러져서 조금만 닿아도 찢어지고 그 밑으로 빨간 피부가 드러났다. 혹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도 되고 불안하였던 순간이었다.

화상을 침으로 치료하겠다고 했을 때 양

방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감염이 무섭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침을 놓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을 때 담당의사는 ‘침을 놓으려면 퇴원하세요!’라며 불쾌한 표정을 보였다.

피부를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침 치료를 해왔는데, 찢어질까봐 섬세하게 다루어왔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허물어지듯이 벗겨지는 피부를 보니 겁이 나기도 했다.

그래도 침을 맞은 상태에서 핀셋으로 상

습지 않을 것 같다. 그 후 붕대를 감고 절룩거리면서 방학 중인 아들의 어깨를 지팡이 삼아 시험적으로 한의원에 나가보았다. 가서 조금 앉아서 진료가 가능한지 시험을 해본 다음 집에 돌아왔다. 그 다음 다음날 출근을 시작하였다.

붕대를 감는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외부의 상해예방에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 아프다고 아픈 것을 쳐다보고 이리저리 못하고 저리저리 못하는 것보다는 붕대에 의지하여 안 보이게

## 상처 낫는 과정 디카로 찍으며 ‘생로병사’ 관찰

## 치료 잘됐다는 의사 말에 붕대 감고 출근

## 화상 경험후 더 하심하고 타인 배려하게 돼

한 피부를 하나하나 건어내고 허룻밤이 지난 다음 아는 의사선생님 소개로 외과에 들렀다. 제대로 치료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외과의사는 상처를 보더니 아주 잘 치료 되었다면서 소독을 해주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렇게 며칠 간 하였다. 붕대로 감으니가 좋은 점이 있었다. 그냥 붕대 없이 지낼 때는 화상상태가 그대로 보여서 조심스러운데 붕대를 감으니가 활동하기가 편해 조금 더 활동성이 보장되었다.

7월 21일 오전, 한의원 회원한지 꼭 10주년이 되는 날. 옹매정진 10여일 전인 그날부터 나는 보름간 그렇게 꼬박 누워서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계속 누워있는 경험도

한 다음 다른 곳에 집중하다보면 어느새 좋아져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일 년이 지난 지금, 그 화상부위는 전혀 표시가 없지는 않지만 정상피부와 다름없이 털도 나고 땀도 난다. 종종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지만 그것도 점점 없어질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피부는 거의 원상태를 회복할 것이다.

화상, 예까지 못한 사고였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나에게도 생기는구나!’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길 가다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당



그림 · 문병성

할 수 있고 등등.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실감하니 자연히 나를 낮추게 된다.

둘째는 희극한 일이 다했을 때 이리할까 저리할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지혜를 길러 놓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환자를 내 몸같이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화상을 입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믿었다. 하지만 화상을 입고 나서야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넷째는 ‘의사는 모름지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다. 참으로 아픈 사람은 치맛바람 한 자락도 몸에 닿으면 소름이 끼친다는 것을 경

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화상을 경험한 이후에는 환자의 발을 수건으로 덮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다. 환자가 추워하는지 더워하는 지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쓴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은 내가 느낀 만큼 유지될 것이다.

내가 입은 화상은 고통과 불행보다는 오히려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아마도 화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너그

럽고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보왕삼매경론(寶王三昧經論)>의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해 지나니, 병으로써 양약을 삼으라’는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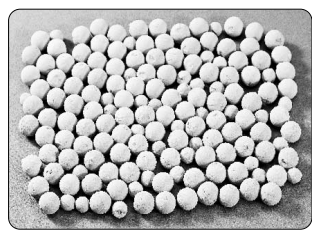
화상이란 병고(病苦)를 이겨내면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된 데에는 춘당 선생님과 도반들, 가족의 도움이 컸다. 짐뚱더위 속에서 고생을 함께 했던 아내 원경과 아들 하연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끝)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전신쇠약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 놓으면 배를 뒹고도 할피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놓으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고글,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받아 놓으면 놓으면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저주 못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 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뭍을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함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이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탈종공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지 : 혜성(장수한)
- 주 소 :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33번지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6년 9월 4일

대한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 신경통·오십견·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들과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간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꼈던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환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장애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픈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 간(肝)의 지방간염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과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재래식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를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낸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터들어 기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 부처님 정통 수행법 Sati 수행 Workshop

올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전문가(교수·대학원생·불교단체임원 등)를 위한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 ◆ 장 소 : 다보산 만나라마(부산)
- ◆ 대 상 : 스님 및 전문가
- ◆ 참가비 : 10만원, 학생 4만원
- ◆ 준비물 : 가사, 일반인 4수행복 지급
- ◆ 지도법사 : 본교 하마라(本願)스님
- ◆ 시작과 마침 : 17시 시작 ~ 15시 마침
- ◆ 내용 및 일정

일시 및 회차	내 용
9회 9월 22일 ~ 24일	· 마음구조와 마음작용 · Sati수행의 이론과 실기 · 간화선·묵조선의 이론과 실기 · 의학, 상담학, 심리학, 뇌과학, Sati수행 비교 · 요가와 불교수행 차이점 비교 · 부처님과 프로이트 마음이해비교 · 수행 프로그램 개발 (수련회, 캠프, 세미나, 법회등)

문의 및 접수 www.satischool.net 011-1700-2841, (055)331-2841

Sati School